

전북연구원 보도자료

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보도시점: 2020년 5월 21일(목)부터

· 문의 :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
(063-280-7141)

· 담당 : 사회문화연구부 이동기 선임연구위원
(063-280-7181)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북, 고령친화도시 조성하자

전북연구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과제 제시
활기찬 든든한 노후, 정든 고향 전북에서 은퇴체류형 모델 구축 등 제안

[사진 및 영상자료 : 없음]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과제’(통권 222호)을 발간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북도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필요성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 전라북도의 고령인구비율은 2019년 20.40%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 2040년에는 고령인구가 70.6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년부양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9년 55.3%에서 2035년에는 101.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든든한 노후, 활기찬 노후, 편안한 노후를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고령화를 도시 환경 구조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정책도구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미 국내의 경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서울시, 부산 등 20개 도시가 가입하여 활발하게 고령친화도시를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연구책임을 맡은 이동기 박사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고령자들이 전북에서 활기차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북의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 연구원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인구유입을 위해 고령친화 은퇴자 체류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전라북도 노인들이 정든 마을에서 생활하고 늘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형 고령친화마을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한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를 위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고, 은퇴자 대상 노후설계, 재취창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순창장수연구소와 연계한 은퇴자 교육연수원 건립도 필요하다고 하였다.